|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

불투명한 계약과 인력 미스매칭 해소하는 정책과제 도출 예정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 10월부터 IT 인력중개 플랫폼과 IT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연계하여 논의했다. IT·SW 산업의 수많은 하도급 구조에서 프로젝트와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인력파견업체들이 독점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불합리한 계약으로 야근수당 없는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보호 미비, 불법파견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 노출됐었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기반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인력 중개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력과 프로젝트가 매칭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20년 2월까지 위시켓, 프리모아 등 IT 인력·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IT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20. 1. 20.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해서 한국인 소프트개발자의 경력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 미국, 일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숙련 형성체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노성철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와 의뢰자 간 투명한 계약 관계를 활성화하여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저숙련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했던 불투명한 계약과 인력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인 역할은 활성화하고, 종사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정적인 문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